



88130117



KOREAN A: LITERATURE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A : LITTÉRATURE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A: LITERATURA – NIVEL SUPERIOR – PRUEBA 1

Friday 8 November 2013 (morning)
Vendredi 8 novembre 2013 (matin)
Viernes 8 de noviembre de 2013 (mañana)

2 hours / 2 heures / 2 horas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literary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0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 commentaire littér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20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literario sobre un solo pasaje.
-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0 puntos]*.

다음 중 하나를 골라 문학적으로 해설하시오:

1.

국수

소금알들이 마침내 녹아든 물을 조금씩, 인색하다 싶을 만큼 조금씩 부어가면서 밀가루를 뒤적뒤적 섞어줍니다. 밀가루가 축축이 젖어들고 엉기면서 내 손가락에 들려붙습니다. 손아귀에 잡히는 대로 밀가루를 주물럭거리며 덩어리를 만듭니다. 손가락 마디들이 구근처럼 불거지도록 꺾꺾 눌러가면서…… 껌처럼 덩이져 양푼에 들붙으려는

5 밀가루를 손가락으로 긁어가면서…… 그래요, 언젠가 저에게 이러한 시간이…… 반죽의 시간이 찾아오리라는 걸 나는 막연하게나마 짐작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굵뚝 손가락들을 오므리고 펴길 반복하면서 견뎌내야 할 반죽의 시간이 말이에요. 오후의 빛이 으깨진 홍시처럼 널린 부엌 창…… 그 창을 무심히 등지고 앉아서 이렇게 꺾.

10 -중략- 반죽이 겨우 한 덩어리로 뭉쳐지는 것 같아요. 여전히 반죽이 너무 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요. 손님처럼 마루 한쪽에 웅송그리고 앉아 밀가루 반죽을 이겨대던 당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손바닥 안의 손금이 다 닳아지거나 앓을까 염려 될 만큼 반죽을 꺾꺾 눌러대던 꺾꺾…….

당신이 반죽 속에 몰래 섞어 넣어 그렇게 꺾 누르고 눌러야만 했던 것…… 그것은 무엇이였을까요. 벌써 이십구 년 전이던가요? 당신이 우리와 살러왔을 때 꼭 지금의

15 내 나이였으니 말이에요. 마흔셋이던 당신은 일흔두 살이, 열 넷이던 나는 마흔세 살이 되었으니…… 당신이 오던 날 친척어른들이 방 안에 모여 쉬쉬 나누던, 석녀(石女) 어찌고하는…… 애를 낳지 못해 이혼 당한 여자라는 소리를 엿들어서였을까요. 어린 내 눈에 당신이 그저 식모살이를 살기 위해 들어온 사람처럼 기가 죽어보였던 것이지요. 당시 중앙시장에서 공구 장사를 하던 아버지는 당신을 집에 데려다 놓고 일을 나가버렸지요.

20 친척어른들이 돌아간 뒤 당신은 부엌으로 들어가 양은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찢 고구마나 포기김치를 담아 낼 때, 혹은 쌀을 씻을 때나 쓰던 양푼에는 밀가루가 들어 있었어요. 양지이던 마루에 응달이 지도록 당신이 꺾꺾 누르고 치댄 반죽을 밀어 뽑아낸 국숫발, 그 국숫발로 끓여낸 국수…… 그 국수에는 알 고명은 커녕 감자나 호박, 과 한 조각 들어 있지 않았지요. 당신은 간조차 치지 않은 국수를 퍼 나와 동생들 앞에 한

25 대접씩 놓아주었습니다. 뭇이 그리 못마땅하고 뭇에 그리 부아가 치밀었던 것인지…… 나는 당신이 기껏 뽑아낸 국숫발들을 손가락으로 푹푹 끊었습니다. 대접 속 국숫발을 죄다 푹푹…… -중략-

당신에게는 우리 사 남매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삶이 최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 셋에 딸 하나를 둔 아버지는 당신으로부터 자식을 보려는 욕심이 없었을 테고,

30 당신은 여자로서 또 다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니까요. 요즘이야 자식을 낳지 않겠다고 당당히 선언하는 시대지만, 당신이 젊던 시대만 해도 어디 그랬던가요. 당신이 들어와 산 지 사 년쯤 지난 어느 날, 당신의 친정어머니가 다녀간 적이 있었더랬지요. 김과 멸치 따위를 팔러 다니는 행상처럼 불쑥 찾아와 당신이 끓인 국수를 한 대접 잡숫고 돌아갔지요. 안방으로 들자는 당신의 청을 한사코 사양하고

35 마루에서 국수를 잡숫던 그분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쥐눈이콩 같은 눈으로 우리 사 남매를 바라보면서 국숫발을 연방 손가락으로 건져 올리던 모습이…… 국수 한 가락 한 가락…… 한 가락…… 한……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속으로 난 자식이었기를 바라고 바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기전 그분이 나와 동생들에게 한 장씩 들려주었던 천 원짜리…… 꼬깃꼬깃하던 그 천 원짜리가 어쩐지 그분의 살점만 같아서…… 살점을

40 푹푹 떼어 우리에게 들려준 것만 같아서 곧장 가게로 달려가 과자와 맞바꾸어버렸지요. 그리고 두어 달 뒤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당신은 장례를 치르러 전라북도 진안이란 곳까지 다녀왔지요.

45 닷새가 지나서야 돌아왔을 때 당신의 머리에는 흰 리본을 매단 실핀이 꽂혀 있었지요. 그 닷새 동안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 애간장을 태웠는지 당신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던가요. 어쩌면 당신이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아서 내 어머니처럼 당신 역시..... 당신과 매한가지로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분의 모습이 이토록 오래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은 어째서일까요. 나와 한 피로 흐르는 외할머니의 모습은 진즉에 빛바랜 것과 달리요. -중략-

50 국수를 다 끓였구나.
당신이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면서 소반에 다가옵니다. 손가락을 쥐더니 양념장을 떠 국수대접으로 가져옵니다. 양념장이 고루 섞여들게 버무리듯 국수를 뒤적여줍니다. 젓가락으로 바꾸어 쥐고 서너 번 더 뒤적이다 국숫발을 건져 올립니다. 대어섯 가닥의 국숫발들이 젓가락에 딸려 올라옵니다.

55 당신의 입이 벌어지기 전에, 애써 들어올린 국숫발들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간신히 걸쳐져있던 한 가락의 국숫발마저도 흘러내립니다. 아무래도 당신의 혀가 국숫발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듯해서 나는 손가락을 집어 듭니다. 국숫발들을 푹푹 끊기 시작합니다. 오래 전, 당신이 내게 처음 끓여준 국숫발들을 손가락으로 푹푹 끊어냈듯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래 전 국숫발들을 푹푹 끊어내던 심정과, 지금 국숫발을 푹푹 끊어내는 심정은 분명 다르겠지요. 푹푹..... 푹.

김숨 <옥수수와 나> (2012)

2.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삼십도
 5 영하 이십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뭇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 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 받은 몸으로, 벌 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10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오도 영상 삼십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15 온 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짝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20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1985)